

# 전남대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갈등'

(여수캠퍼스)

### 학생들 "학습권 보장 위해 광주캠퍼스로 이전해야" 지역 시민단체·의회 "지역경쟁력 약화... 이전 반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의 광주캠퍼스 이전 문제를 두고 학생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광주캠퍼스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여수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지역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학생회는 2일 오후 1시 이순신광장에서 광주캠퍼스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동명휴업에 들어간 특수교육학부 학생들은 31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캠퍼스 이전을 촉구했다. 특수교육학부 학생회는 입장문에서 "전공수업을 위해 하루 4시간 여수와 광주를 오가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 당했지만 인내해 왔다"며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비를 들여 고속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안전 문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캠퍼스에 완공될 교육융합센터내 특수교육학부 공간 배치는 기정사실이다"며 "특수교육학부 이전 문제는 캠퍼스 공동화 현상이나 지역사회의 여론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등은 인구감소와 인재 유출, 지역경제 약영향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이전을 반대한다. 배석중 전남대 여수캠퍼스 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되면서 여수캠퍼스 학과가 주는 등 결과적으로 지역경쟁력이 약해졌다"며 "여수캠퍼스만의 특성화학교인 특수교육학부의

이전 추진은 여수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학생들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학 통합 때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은 대학의 잘못"이라며 "장병석 전남대 총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학부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만큼 이후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의 광주캠퍼스 이전 등 학사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자 난감한 모습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사 문제로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수천만원 취업 사기 3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또 다른 김모(43)씨 등 6명에게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천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과거 현대모비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치 자신이 현대모비스 정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장애인부모연대가 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형비 벌자' 골퍼 등 16명 공갈·보험사기... 불구속 입건

유형비를 벌려고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를 낸 뒤 돈을 받아 내거나, 고의 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프로골프 선수 5명 등 모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과 보험사기 혐의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 프로골프 선수 A(2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프로골퍼 4명, 세미프로 1명 등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프로골프 선수 출신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차아정 기자

## 장애 학생 사고 은폐에 학부모들 '분통'

### 시교육청, 특수학교 정기 실태조사 등 대책 추진

광주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학생의 사고 경위 은폐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광주 장애인부모연대는 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교 종사자들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한 면밀한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9월 7일 5학년 학생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비누 보관대에 머리를 부딪쳐 2바늘을 꿰맸다. 학교 측은 애초 "혼자 넘어졌다"고 학부모에게 알렸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양치질을 돕던 사회복무 요원과 충돌로 다쳤

다고 말을 바꿨다. 다친 학생의 가족은 장휘국 광주 교육감에게 쓴 편지에서 "감사관 조사를 통해 구태와 악습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은 엄하게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중 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례별 지원을 하고 특수교육 실무사 증원, 상담교사 역량 강화, 장애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 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돈 받고 맞춤형 비방보도 前언론인 선거법은 '유죄'·명예훼손은 '무죄'

### 광주지법 "고발된 일부 보도, 상당 부분 진실과 부합"

선거 경쟁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전직 군수 비방 보도를 한 지역신문 주필이 선거법에서는 유죄를,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금을 받고 신문사를 만들어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일부 보도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전 합평군수를 비방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신문 주필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12월 합평에서 주간지를 만든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안병호 합평군수와 군 행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합평산단 조성계획에 대한 비판, 추사작품 구입비 5억원 선집행 문제점, 군수 부인 소유의 주유소 유류 독점 공급 등을 집중 부각한 신문 5천여부를 배포했다. 검찰은 산단조성 계획, 부인 주유소 독점 판매 등의 보도를 하던 군 입장을

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유류 매출 자료 미 취재 등 안 전 군수에게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보도가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국민의 관심사항이자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며 "군수 경쟁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비방 목적 보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그 사안과 피해자가 공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보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홍보하고 안 전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신문사 장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운행 합평군수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는다

### 2000년 공소제기... 2008년 이후 사건부터 가능

법원이 재심을 앞둔 무기수 김신혜(41)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된 만큼 그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공소가 제기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

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